10일 Market Index
코스피 5239.13 (+220.28)
코스닥 667.61 (+28.64)
금리(국고채 3년) 3.633 (-0.006)
환율(원·달러) 1337.5 (-9.6)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세금신고에 전화까지… 비서가 생겼어요"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❶ 필요한 일 먼저 제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심심이와 시리처럼 대화하고 명령에 답하는 서비스를 거쳐, 이용자가 맡긴 일을 여러 웹과 앱을 넘나들며 이어가는 에이전트(비서)로 진화하고 있다. 일이 바로 끝나지 않아도 진행 흐름을 따라가며 작업의 다음 단계를 돕고, 먼저 필요한 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AI 에이전트의 진화와 활용 사례,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2002년 등장한 '심심이'는 메신저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챗봇이었고, 애플이 2011년 공개한 '시리'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명령하는 개인 비서였다. 둘 다 당시의 AI 서비스였지만, 이용자의 말에 반응해 대화하거나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최근 AI 에이전트는 맡긴 일이 바로 끝나지 않더라도 진행 상황을 이어가고, 필요한 때 이용자에게 승인이나 피드백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연결된 일정이나 계정 등 데이터를 살펴 먼저 필요한 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개인 AI에이전트 앱 '피클' 네이버·홈택스 등과 연결 앱 닫아도 맡긴 일 계속 처리

빅테크는 AI 에이전트를 개인용·상시형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xAI는 지난 8월 여러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나눠 병렬로 처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록봇'을, 오픈AI는 지난 9월 상시형 에이전트 '닷츠'를 공개했다. 닷츠는 연결된 앱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정보를 살펴 필요한 일을 찾는다. 메타의 개인 에이전트 '뮤즈'는 쇼핑과 일정·메일·구독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내세웠다.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전체 순위에서 뮤즈는 지난 9일 기준 미국 2위·캐나다 1위에 올랐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21일 '클로드 듀엣'을 공개하고 미국의 프로·맥스·울트라 요금제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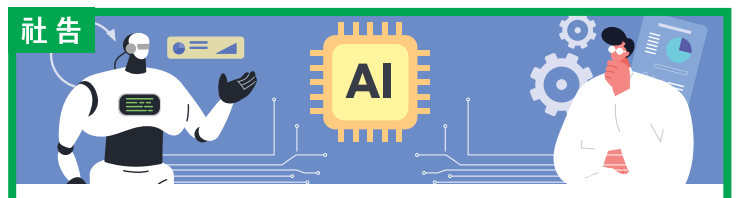
뮤즈와 클로드 듀엣은 국내에 정식 출시 되지 않았다. 다만 뮤즈의 경우, 백도어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큐(CUE)'와 '인스팅트'가 있다. 큐는 에이전트마다 전화번호·이메일·컴퓨터 등을 부여하고 여러 에이전트의 협업을 지원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스팅트는 문자나 전화로 요청하면 일상 업무를 돕는 개인용 AI 에이전트다.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피클'은 개인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정부24, 홈택스 등 국내 특화된 앱·웹 등의 서비스 연결과 외부 통화도 지원한다. 부이코리아의 '부이(VOOY)'는 메신저에서 취향과 맥락을 반영해 검색·비교·예약을 돕는다. '말랑AI'는 이용자의 음성 요청을 받아 앱 안의 화면을 읽고 버튼을 누른다. '마크헙'은 AI 에이전트와 팀 업무에 특화된 메신저 서비스다. 〈2면에 계속〉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성료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엔비디아 시총 258조 증발… 서학개미 '비명'

젠슨 황 스캔들에 주가 급락
韓 투자자 엔비디아 보관액 20.5조로 테슬라 이어 2위
삼전닉스 영향은 '제한적'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 봤는데 디렉시온 반도체 3배 레버리지(SOXL) 왜 -15%인가요?"

"며칠 새 소형차 1대 값 날렸습니다."

"믿을 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주식뿐"이라며 엔비디아와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인 서학개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에 대한 이사회 조사 여파로 나홀로 급락하며 하루 새 시가총액 1921억달러(약 258조원)가 증발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3% 내린 178.67달러에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8.8% 급락하기도 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보관액은 약 20조5000억원으로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보관액 상위 12개 중 VOO·QQQ 등 ETF 5개도 엔비디아 주가의 영향을 받는다. 직접 보유에 ETF를 통한 간접 투자까지 겹친 만큼 엔비디아의 나 홀로 하락에 서학개미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황 CEO는 혼외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주주들은 회사와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관계 및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엔비디아 CEO 스캔들과 이사회 조사로 인공지능(AI) 대장주가 홀로 밀렸지만, AMD·브로드컴과 반도체 장비주로 매수세가 번지며 (미국 증시) 4대 지수가 일제히 2% 넘게 반등했다"며 "중·소형주까지 가세하며 랠리의 저변도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날 주가는 각각 4.53%, 6.69% 급등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컴퓨팅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미국 내에 건설하지 않는다면) 결국 데이터센터는 자연스럽게 미국 밖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판대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 검토…심의 착수

온라인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 각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큰 관심을 모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기업결합 허용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건에 대해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심인 측이 제출한 시정방안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구체적인 주식 교환 방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더해,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 포함됐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서 의결 /사진 뉴시스
▲여야, 예결위서 '호남 반도체' 공방…野 "졸속 추진" 與 "속도 내야"
▲조현, G7 계기 프랑스·사우디 외교장관 만나 우크라·호르무즈 정세 논의
▲李가 예고한 부동산범죄 3차 단속 시작…집값 담합·허위거래 정조준
▲사람은 쉬어도 탐지는 계속된다…"AI 도입후 성착취물 처리 10배↑"
▲15일부터 전국 우체국 2000여곳서 '한파 쉼터' 운영